



흡정역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Why I Love Korean King James Bible?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시4:3).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받은 소명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긴 시간을 - 당사자에겐 징그럽도록 긴 시간이다 - 고민하고 갈등했던 기억이 엇그제 일 같다.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벧후1:10).

지금 되짚어 보면 그저 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당시에 나는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데 옆의 아내는 천하태평으로 잠만 잤다. 시간만 나면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래도 점 집/무당 집은 안 찾고 교회/사역자/기도원만을 찾고 또 찾았다. 묻고서 답을 얻고 그곳을 나설 때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신학을 해야지.”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또 다시 의심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말 그대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간의 반복이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시73:22)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을 반항하고 투쟁하며 보내다가 결국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신8:5).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시57:7).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치렀기에 그 이상의 고통이 다시 찾아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염원이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말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을 만나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무 의심 없이 공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개역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손에 잡은 흡정역 성경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읽고 차츰 깨달으면서 온 몸과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밀려들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바르도대(잠8:9).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갈등은 신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 속으로 다시 나를 몰아갔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시119:28).

가족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 이때 간첩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 약 1년간을 혼자 몰래 숨겨두고 도둑질하듯이 흡정역 성경을 읽으면서 흡정역 성경을 읽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무척 겁을 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다고 어디다 내 놓고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매일 매일을 진퇴양난 속에서 지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르고픈 이발사가 바로 나였다. 아마 요즈음 세대는 이게 뭐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잘 안다. 불온서적이냐 금서라고 리스트에 오른 책을 소지하거나 만났을 때의 심정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뉘이니이다(시73:26).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교단 신학교 출신자가 사역을 하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걸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흠정역 성경이 전혀 흠 잡을 데 없이 - 흠, 흠이다 -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나의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딤후1:15). 하지만 나의 이성엔 늘 양심의 반대편에서 아래처럼 끊임없이 맞붙을 질러댔다.

! 가 (5:17)? 가
가 ?

개인적으로 나의 유일한 남동생은 장로 교단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단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흠정역이고 동생은 개역이다. 아이고,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생각하면 머리에 쥐난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문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도 없었고(암3:3) 고민으로 다가왔다(마10:36).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쯤에서 흠정역 성경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15:10).

이제부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흠정역 성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려 한다. 여기서 흠정역 성경의 정통성/우수성/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할 것이다. 진심으로 독자가 알아보고 싶다면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킹제임스 성경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당연히 흠정역을 반대하는 글도 찾아 읽으면서 서로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렘29:13).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성경이란 이름을 걸고 교회와 교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마5: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순수한 성경과 인간들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기교를 부려 만든 성경은 전혀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물러서서 다른 일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웃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무조건 잘못된다. 즉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들이

손을 대서 고친 성경은(고후2:11) - 성경의 단 한글자라도 고의로 고쳤다면 - 진리의 성경이 될 수 없다. 그 성경은 그저 그런 인간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말을 줄이고 지금부터는 왜 내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택하고 전혀 후회 없이 외길을 가는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 이유를 공개하려 한다. 이유가 엄청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 정도만 쓰려 한다.

1.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본 정신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진이 우수하다든가 혹은 성경 번역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성경들을 여러모로 접하면서 - 대략 20~30가지 - 세상의 일반적인 성경들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절대자(전능자)로 대접한다는 점이다.

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4:10).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상 모든 성경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울러 우리 주님에 대한 대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두 성경을 펴 놓고 어떤 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읽어 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흠정역 고후5:15, 2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개역).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극존칭을 사용한다. 세상 성경과 달리 흠정역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깎듯한 극존칭으로 대우를 해 드리고 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안 그런가? 영적 아버지께는 대충 해도 되는가? 독자는 독자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말하는가? 내가 늘 말하듯이 그저 그런 절간의 뺨초들도 - 모두 지옥에 갈 인생들이다 - 자기 동료들 부를 때는 높여서 '스님'이라고 한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주님께 의도하든 안하든 '님'자도 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성경들이 하는 일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주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다들 그냥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한다. 독자는 이게 그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깨서 아시고(흠정역 요4: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개역)

이런 번역은 늘 아기 예수만 들먹이는 로마 카톨릭 집단이 의도한 것이다(시2:4). 이러니까 설교나 기도하면서 사역자고 교인이고 누구나 겁도 없이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호칭을 마구 쏟아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존칭으로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배 밭 근처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살전5:22).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을 보고 그때 결심을 하였다.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전5:2).

2.

나도 개역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 완독을 몇 번 했다는 식의 자랑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읽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약4:16).

그런데 개역성경을 가지고 완독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읽든지 짜증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히 개역성경은 내켜서 읽었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읽었다.

“거 참 성경이 진짜 어렵구네! 이걸 보통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구네!”하고는 더 읽거나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적이 매우 많다. 명색이 목사인데도 말이다. 성경이 어려우니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역성경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앞뒤 문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개별 단어는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관련 주석 책을 달고 살았다. 물론 나의 무식도 여기에 일조했을 것이다.

?

?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난 뒤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엄청 의심을 했다.

가

?

가

가?

?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독자도 당장 구해서 한 번 읽어 보면 내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살전5:21).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석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다. 물론 살 돈도 별로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굳이 주석 책을 봐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흠정역을 읽으면서 당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해답을 찾아 주시고 아둔한 나를 깨닫게 하신다(시32:8).

그렇다!

하나님께서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지 어떤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당연한 생각이 떠오르자(고전1:26-29) “웁거니 이게 진짜 성경이구네!”하고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빠져들어 갔다.

반면에 이를 악용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와 사제에게 성경 독점권을 준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벧후1:20-21). 그런데 ‘영적’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 즉 ‘영적=어렵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성경은 난해한 책이고 누구나 해석해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대개 단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이기 전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성경 기록의 일차적 목적이 교리에 관한 분별이다(딤후3: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doctrine)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²⁾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교리 부분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성경 해석은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이고 - 이걸 상식이다 - 그 뒤에 문자적 해석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영적으로

2) ‘ (doctrine) . ‘ , .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자기 위주의 해석이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다.

나의 글들을 읽으면 모든 글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행된다. 그런데 내가 인용한 말씀의 영적 뜻은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하면서 올린 문장이 몇 개나 되나 한 번 찾아보라!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1%도 안 된다. 이걸 위해 영적 해석에 매달려야 하나? 그러므로 내가 인용한 말씀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면서(롬12:3) 슬슬 읽어 가면 된다. 복잡한 세상에서 굳이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자!

“말씀의 깊은 뜻이 무얼까?”, “이건 무얼 말하는 걸까?” 등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서 가면 된다. 성경을 어렵게 읽고, 어렵게 해석하는 짓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때 바로 올라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을 영적(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잘난 인간들의 못된 버릇은 초대 교회시대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성경이 어려우면 좋아할 사람은 오직 샅꾼 목사와 신학자들밖에 없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내용이 평이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므로 성경을 마음먹고 대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의 대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고전2:13).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다(요일2:27). 의심나면 직접 읽어 보고 아니면 나에게 항의하기 바란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4).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야 할 목회 방향도 결정하는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었다(고전2:13).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쪽으로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딤후 3:14)!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시56:10).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첫 출판 후 지금까지 철자법 등의 변화로 인한 교정(정정)만 몇 번 했다.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개정(revision)은 성경의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교정 혹은 정정(correction)은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 잡는 일이다. 이것은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 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본문을 바꾸는 일을 즉 성경 개정을 휴지로 코푸는 일처럼 쉽게 해 왔다(수십 번씩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요즈음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개역 개정판을 사라고 선전하고 거의 반강제로 팔고 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성경을 개정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 개정이라고 토를 달았다. 개역개정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개정한 것을 밝혀놓았다.

7

“새 시대에 맞게 고쳤다.”는 말은 예전의 개역성경은 내용이 부족한 구시대 성경이라 침단을 달리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이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